

주간동향 [2006. 9.21~9.27]

강민정

 본원 전문연구원
 02-3156-7137
 kwdi_trends@kwdi.re.kr

-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조사 발표
-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명록 발간
- ❖ 여성가족부, 2007년 예산안 확정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 ❖ 여성가족부, 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 개소
- ❖ 2006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결혼 이민자의 삶' 개최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조사 발표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9월 24일 전국 363개 대학 및 139개 일반대학원 졸업자 561,2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61,203명 중 취업자는 389,157명으로 집계되어, 전체 취업률은 75.8%(전문대학 84.2%, 대학 67.3%, 대학원 석사 78.5%, 박사 90.9%)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청년층(15~29세) 경제활동참가율 75.7%와 비슷하다.

정규직 취업자는 299,804명으로 전체 정규직 취업률은 58.4%이고, 전문대학 67.1%, 대학 49.2%로 2005년 대비 각각 1.9%p, 1.6%p 상승하였으며, 대학원 취업률은 석사 62.7%, 박사 63.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취업자는 80,679명으로 취업률 15.7%이고 전문대학 15.6%, 대학 16.7%로 2005년 대비 각각 1.5%p 감소, 1.3%p 상승하였다.

한편 성별 취업률을 보면 남성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62.3%인 반면 여성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53.6%였다. 여성 졸업자의 총 취업률은 전문대학 84.0%, 대학 64.7%, 일반대학원 76.1%로 남성에 비하여 각각 0.3%p, 5.3%p, 9.1%p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 여성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률의 경우 전문대학이 66.3%, 4년제 대학 42%, 일반 대학원 50.1%로 남자에 비해 각각 1.8% 포인트, 14.3% 포인트, 20.1% 포인트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규직 취업률의 성별 격차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명록 발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5급 사무관 이상 지방 여성 간부공무원의 수가 최근 5년 사이 27.9%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6일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명록에 따르면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지난 8월1일 현재 1천105명으로, 2001년 말의 864명에 비해 241명(27.9%)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여성 간부공무원의 증가는 여성 공무원 내부 승진인사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의 수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5급 이상 일반직 여성 공무원은 지난 8월1일 현재 747명으로 2001년 말의 468명에 비해 279명(59.6%)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획·인사 등 주요보직의 여성비율이 2001년 말 12.5%에서 지난 8월1일 현재 23.8%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의회 여성의원 비율도 2002년 2.3%에서 지난 8월1일 현재 14.5%로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연령과 재직기간을 보면, 평균연령은 49.8세이고, 평균 재직 기간은 23년9개월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원 졸업이 31.3%를 차지했고 대학원 졸업 이상자 가운데 5.1%(56명)이 박사학위 소지자였다.

지방여성공무원 가운데 최고위직은 서울시 제1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는 신연희(별정1급) 여성 가족정책관이었으며, 이봉화 서울시 감사관(2급 이사관)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현직 단체장으로는 김영순 서울 송파구청장, 박승숙 인천 중구청장,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등 선거직 3명과 이정숙 청주시 흥덕구청장, 이재선 수원시 영통구청장 등 임명직 2명이 있다. 여성 부단체장은 김웅자 강진부군수, 최숙희 밀양부시장, 장부연 인천 남구부구청장, 정숙영 구리시 부시장 등 4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여성가족부, 2007년 예산안 확정으로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는 9월 2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공보육의 강화와 다양한 가족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7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올해 8,749억원보다 30%가 증가한 1조 1,378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2007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육부문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1조 446억원으로 가족부문은 433억원(10.2% 증가), 여성1권익증진부문은 325억원(13.7%)으로 증가했다. 먼저, 보육료 지원 및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공보육을 강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에서 100%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예산도 2,733억원에서 4,09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민간 보육시설의 영아(0~2세)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유아 기본보조금제도의 시범실시에 따라 1,356억원이 책정됐다. 또한, 취학전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예산이 올해 1,284억원에서 1,303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돌봄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연계한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27억원을 배정하였고, 결혼이민자가족센터 운영에 16억원,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6억원이 배정되었다. 지역여성 일자리창출 및 지역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4억원의 예산이 신규 배정되었고, 여성인력개발 및 맞춤형 여성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35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가하였다.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를 위해 지원시설, 상담소 운영, 성매매 예방·홍보 등의 사업에 71억원을,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 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의 사업에 143억원을 배정했다.

❖ 여성가족부, 여성 희망일터 지원본부 개소

여성가족부가 여성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동시 해소하기 위해 9월 26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여성회관 내에 '시흥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를 열었다. 반월·시화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는 경기공업대가 운영을 위탁받아 공단과 지역 여성을 연계하는 취업 지원을 비롯해 여성 친화적 공단 조성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 등을 벌이게 된다. 특히 취업을 하고 싶어도 정보가 부족해 재취업을 못하는 여성, 육아나 가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전업 주부 등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취업설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상담전화도 개설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인력실태조사 결과 반월·시화 산업단지의 부족 인원은 총 8천598명이나 됐다. 여성가족부가 5월 실시한 표본 조사 결과, 이 산업단지의 여성 인력 수요는 5천500여 명으로 추정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시흥에 첫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를 설치한데 이어 내년에는 영남권 등 총 5개 여성희망일터 지원본부를 둘 계획이다.

❖ 2006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 '결혼 이민자의 삶' 개최

2006 국제여성정책심포지엄'이 9월 27일 대구엑스코(EXCO) 국제회의실에서 타이완, 베트남, 일본, 한국의 여성학자와 정책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은 '다문화 사회, 아시아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과 삶'을 주제로 세계화 진행과 다문화 사회로의 지향 속에서 아시아 각국 결혼이민자가 처한 상황,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타이완 世新大 시아 시아오쥘옌(夏曉鵬) 교수는 "많은 동남아 여성들이 자국의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타이완남성과의 결혼을 결심한다"며 "이들 '외국인 신부'는 결혼 이후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네트워크를 갖지 못해 편견과 차별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베트남의 부이 티 박 뚜잇 호찌민여성연맹결혼지원센터장은 "한-베트남간 국제결

혼이 늘고 있으나 잘못된 정보를 받고 결혼하는 등 피해사례가 증가했으며 베트남 여성을 비하하는 광고로 명예를 실추시키고 상품처럼 취급해 베트남사회에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발표자들은 “한국정부가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한국문화, 생활 등에 대한 교육과 기초법률, 긴급전화 및 구조기관 등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국 양승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장과 윤호정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정책적 시각에서 본 여성결혼이민자’ 발제를 통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 정책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관계자는 “순혈주의에 따른 편견이 여전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심포지엄을 가졌다”고 말했다.